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사례와 시사점 :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김민희 (대구대학교)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사례와 시사점 :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 자 김민희

총 팔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본 이슈페이퍼는 집필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교육재정중점연구소의 입장 및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연구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E 시범운영 프로젝트 중 K-U시티 프로젝트 구축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RISE 성과 도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K-U시티 프로젝트 운영 사례는 타지역과 차별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성과 도출 및 정착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에 주는 의미있는 시사점 도출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RISE체계 구축 경과 분석
 - 2023년 지방자치단체 RISE체계 구축 경과 및 주요 내용 분석
- 2023년 RISE 시범지역 운영 내용 분석
 - 지방자치단체 RISE시범지역 선정 기준 및 결과 분석
- 경북 RISE체계 주요 현황 분석
 - 경북 RISE체계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분석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현황 및 쟁점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경과 분석
 - 주요 쟁점 분석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시사점 도출

■ 연구방법

- 문헌 분석
 - 중앙정부 차원의 RISE체계 구축 관련 보도자료 등 분석
 - 경북도 RISE체계 및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관련 기본계획서 분석
- 담당자 면담
 - 경북도청, 경북RISE센터, 영천시청, 대학 K-U시티 담당자 면담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연구 결과

주요 연구 결과

- 2023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RISE 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하고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 경쟁력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 규제, 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RISE 체계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음. 교육부에서는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추진,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 육성(글로벌대학 선정 포함),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2023년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하며 전국적 확대 준비 등을 추진하였음
 - 특히 기존에 중앙단위에서 추진되었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RISE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음
- 2023년 RISE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에서는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K-대학 대전환' 비전을 수립하고 총4대 혁신과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며, 핵심과제 도출 및 성과지표 달성 체계를 구축하였음
 - 경북RISE 4대 프로젝트 중 [K-U시티 프로젝트]는 지역정주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총4개의 유형별 단위과제가 포함되어 추진되었음
 - 2023년 시범운영 선정 당시 [K-U시티 프로젝트]는 1시군-1대학-1전략 프로젝트 수행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도시형/발전형, 공동기획형, 울릉형의 4가지 유형을 수립하고 대학과 지역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 시범운영 기간에는 도비(30%)와 시군구비(70%)로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총예산규모는 53억원 정도였음
 - 2024년 이후 [K-U시티 프로젝트]는 4개의 유형을 벗어나 지역의 수요와 공

주요 연구 결과

급, 경북형 특성화 전략 프로젝트를 모델화 하는 방식으로 변경, 고도화되었음

- 경상북도에서 RISE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K-U시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이 국가 차원의 상위 법령 또는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나타남. [K-U시티 프로젝트] 시범운영 당시 수립한 계획은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특화사업에 참여하여 대학입학까지 연계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전국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학입학전형계획(입학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시군-1대학-1기업 매칭 사업의 내용은 지속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음
- [K-U시티 프로젝트]는 시범운영 당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여 운영하였고 사군이 직접 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이 과정에서 사군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호간 협력의 어려움이 나타남
- [K-U시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즉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 유치가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지역의 산업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군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지역소재 기업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맞지 않아 매칭이 어려운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표 구성이 요구되는데, [K-U시티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간 격차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에 걸맞는 유의미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K-U시티 프로젝트] 추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공 핵심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함
 - 첫째,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군에서 대학과 산업이 연계되어야 함. 대학의 연구 및 개발 능력과 지역 산업의 필요를 연결하여,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함. 이는 대학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해야 함
 - 둘째, 인재 양성 및 고용 창출로,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함. 이를 통해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내에서 고용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K-U시티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연구개발(R&D) 및 혁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지자체와 대학은 지역 산업 유치와 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창업을 촉진해야 함. 이는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넷째,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해야 함. 대학과 산업의 협력은 지역 경제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K-U시티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므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개발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경상북도가 추진한 [K-U시티 프로젝트]는 경북 RISE체계에 포함된 단위과제임. 따라서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므로 타사업과의 중복성 및 성과도출을 고려하면서 사업구조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함
 - 시범사업 추진 이후 [K-U시티 프로젝트]는 경상북도 RISE체계 구축에서 다른 사업으로 통합되었음. 이러한 노력
 -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RISE사업 추진 시 상위법령과 충돌이 나타나지 않

핵심 정책제언

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사례와 시사점 :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ISSUEPAPER 25-1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5
- 3. 연구 방법 5

II. 지방자치단체 RISE체계 구축 경과

- 1. RISE체계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9
- 2. RISE 시범지역 운영 16
- 3. '25년 RISE체계 확대 시행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21

III. 경상북도 RISE체계와 K-U시티 현황과 주요 쟁점

- 1. 경상북도 RISE체계 주요 내용 27
- 2.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제안 배경 34

3.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운영 현황	39
4.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특징과 주요 쟁점	47

IV. 결론

1. 경북 K-U시티 성공 핵심 요소	55
2. 제언	56

참고문헌	61
-------------------	-----------

Abstract	63
-----------------------	-----------

표 목차

〈표 II-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규제특례 요청 사례	14
〈표 II-2〉 RISE 시범지역 선정 기준	16
〈표 II-3〉 RISE 시범지역 선정 평가기준	17
〈표 II-4〉 RISE 시범 운영 지역 주요 내용	20
〈표 II-5〉 지자체별 RISE 전담조직('24.5.1 기준)	21
〈표 II-6〉 '25년 RISE 정부 예산안 구성	23
〈표 III-1〉 산업별 생산액과 비중	29
〈표 III-2〉 경북 시·군의 당해년 GRDP와 증가율	30
〈표 III-3〉 경북 시군별 K-U특성화 전략 및 산업분류	37

그림 목차

[그림 II-1] 지방자치단체 RISE 체계	9
[그림 II-2]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11
[그림 II-3]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11
[그림 II-4]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12
[그림 II-5] 지역주도 대학지원사업 모델 (예시)	12
[그림 II-6] 글로벌대학 효과 체계도	13
[그림 II-7] RISE 기대효과	15
[그림 II-8]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22
[그림 III-1] 경북 성장률 추이(단위: %)	28
[그림 III-2] 경북 RISE체계 내용 범위	31
[그림 III-3]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 구축도	32
[그림 III-4] 경북 RISE체계도	32
[그림 III-5] 경북 RISE 핵심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33
[그림 III-6] 경북 K-U 시티 수급 성장 모형	35
[그림 III-7] 경북 K-U시티 모형	36
[그림 III-8] K-U시티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7대 지원체계	36
[그림 III-9]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체계	40
[그림 III-10]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시범운영 유형	41
[그림 III-11] 청송군 K-U시티 사례와 경북 공간발전도(예시)	43
[그림 III-12] '24년 이후 K-U시티 프로젝트 체계	43
[그림 III-13] '24년 대비 '25년 경북도 K-U시티 주요 제도 변화	44

○———— 1.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3.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음
-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를 구축, 추진하고 있음
 - RISE는 지자체가 향후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포함하므로, 이와 관련한 시범 운영이 수반되어야 함
- 교육부에서는 '23년도에 7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RISE체계 구축 확대를 추진해 왔음
 - 시범사업은 RISE체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RISE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 개선, 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을

준비해 왔음

- 경상북도는 2023년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RISE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설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RISE는 총 4개의 프로젝트와 17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에서 K-U시티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역을 직접적으로 매칭하여 지역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대학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밀착형 산업구조와 보다 밀접한 네트워크를 맺을 필요가 있기 때문임
- '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처음 시작된 경북 K-U시티 프로젝트는 구조와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었음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운영 사례는 타지역과는 차별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성과 도출 및 모델 정착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제기됨
 -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그 특징과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RISE체계 구축 및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RISE 성과 도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다만, 이러한 현황과 쟁점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공개된 문헌 자료 분석과 담당자 면담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자는 경북도청의 K-U시티 담당팀장 및 주무관, 경북RISE센터 담당자, 영천시청 담당팀장 및 대구대학교의 RISE 담당부서인 기획처 부처장 및 담당직원 등임
 - 면담은 2024.9.2.~9.23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직접 경북도청(RISE 센터) 및 영천시청 등 기관방문을 통한 대면 또는 전화나 e-mail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주요 면담내용은 각 주체별 입장에서 K-U시티 추진 실태, 주요 성과 및 쟁점, 한계 등임. 향후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중앙정부 등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음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지방자치단체 RISE체계 구축 경과 분석
 - 2023년 지방자치단체 RISE체계 구축 경과 및 주요 내용 분석
- 2023년 RISE 시범지역 운영 내용 분석
 - 지방자치단체 RISE시범지역 선정 기준 및 결과 분석
- 경북 RISE체계 주요 현황 분석
 - 경북 RISE체계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분석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현황 및 쟁점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경과 분석
 - 주요 쟁점 분석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시사점 도출

3.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 중앙정부 차원의 RISE체계 구축 관련 보도자료 등 분석
 - 경북도 RISE체계 및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관련 기본계획서 분석
- 담당자 면담

- 경북도청, 경북RISE센터, 영천시청, 대학 K-U시티 담당자 면담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 II. 지방자치단체 RISE 체계 구축 경과

- 1. RISE체계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 2. RISE 시범지역 운영



지방자치단체 RISE체계 구축 경과

1. RISE체계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가. 추진 개요

- 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함

목표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 “지역이 키우는 대학”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그림 II-1] 지방자치단체 RISE 체계

출처 : 교육부(2023a).

- 2023년 2월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RISE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RISE체계는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하며,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그림 II-1] 참조)

나. 추진과제

- RISE 체계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의 5개임(교육부, 2023a)
 - 2023년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Ⅰ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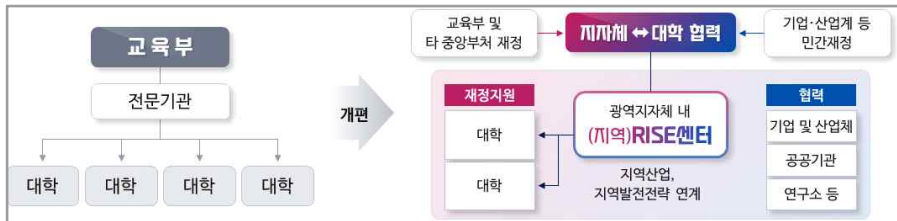
- 교육부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함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는 라이즈(RISE)로 통합하여 지원함
 - ※ (예산 사업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 나아가, 5개 사업의 통합과 함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함 ([그림 II-2] 참조)



[그림 II-2]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출처: 교육부(2023a).

-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2021년 결산 기준)는 약 15조 원(사업 수 1,026개)이며, 그 중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약 5조 원 추산
- 지자체(시도) 전담기관(비영리 법인)에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지방대육성법」제21조)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편하여,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그림 II-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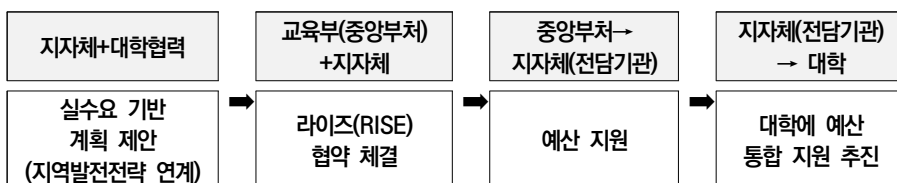
[그림 II-3]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출처: 교육부(2023a).

2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을 육성한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근거하여 지역대학을 지원함([그림 II-4] 참조)
- 교육부는 지자체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해 지자체의 라이즈(RISE)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운영함



[그림 II-4]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출처: 교육부(2023a).

- 지역주도 대학지원사업 모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예시를 참고하여 구축할 수 있음. 지역정주를 위한 취창업 연계, 지산학연 협력, 혁신적인 직업평생교육 및 지역현안 해결 등임([그림 II-5] 참조)

[모델①]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	[모델②] 지·산·학·연 협력
- 내용 : 지자체-대학 협업을 통해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업 및 혁신 공간 구축 - 효과 :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타부처연계(예) : 중기부 '벤처기업육성특정지구', 국토부 '캠퍼스 혁신파크'	- 내용 :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연구 기술 자원 활용 - 효과 : 대학의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 생태계 고도 - 타부처연계(예) : 과기부 '지역산업연계 대학 개방형 혁신연구실 육성 지원'
[모델③] 혁신적인 직업·평생교육	[모델④] 지역현안 해결
- 내용 :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직업·평생교육 기능 확대 - 효과 :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 대학 활성화 선순환 체계 구축 - 타부처연계(예) :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사업'	- 내용 : 지자체-대학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난제 해결 지원 - 효과 :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부족 등 현안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타부처연계(예)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그림 II-5] 지역주도 대학지원사업 모델 (예시)

출처: 교육부(2023a).

〈혁신적 변화를 추진하는 글로벌대학 육성〉

-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선정하여 육성함

※ 글로벌대학 개념(안) :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 분야에 세계적인 대학

Ⅰ 대학의 담대한 혁신 방향(예) Ⅰ

- | | |
|--------------------------|---------------------|
| •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전면 개편 | •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 |
| • 평가 방식 개선 등 과감한 교원인사 개혁 | •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
| • 지역 산업 및 문화 파트너십 형성 | • 대학 간 통합 및 학문 간 융합 |

- 글로벌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임(「지방대육성법」 제17조)
 -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 지원함
 - * 교육부 5년간 1,000억 원(교당) 지원 추진, 지자체와 중앙부처, 산업계 집중투자 등
 - 글로벌대학은 지역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어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그림 II-6) 참조)



[그림 II-6] 글로벌대학 효과 체계도

출처: 교육부(2023a).

- (가칭)글로벌대학육성위원회를 통해 심의·지정할 계획이며, 대학의 담대한 비전과 혁신의지, 대학의 실천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③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방대육성법」제22조)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II-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규제특례 요청 사례

분야	주요 내용
교직원 인사	• 겸임교원 학기 단위 임용, 별도채용 절차(특별채용) 허용 등
학사 운영	• 학교 밖 이동수업 규제 완화, 국내대학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학점기준 완화 등
타부처 관련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인근 공원에서 실증 교육과정 운영 허용,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학과의 이동수업 거리 제한 예외 등

-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함
 -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
 - * (권한위임) 지방대육성법 등, (규제개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개정 추진

④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 RISE가 차질 없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지원 추진기반이 충실하게 갖춰져야 함
 - 우선, 사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의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의 심의·조정하도록 함
 - ※ (전담부서) 사도 자율운용 정원범위 내 시범지역 운영, (협의회)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 또한, 지자체가 사업의 관리와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전담기관(지자체 관할 비영리법인)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전문적 대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교육부는 RISE가 2025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양과 전담기관 지정,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관련법령 정비를 완비함

⑤ 2023년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전국적 확대 준비

- 2025년 전 지역 확대에 앞서, 2023년 시범지역을 5개 내외 선정·운영하여, 라이즈(RISE)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함
 - 선정된 지역에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맞춤형 규제특례, 일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주도로 재정지원 또는 지자체 연계 강화, 교육부와 공동 설계·조정(Co-Design)을 통한 협약안 마련 등을 실시
- 기대효과([그림 II-7] 참조)
 - RISE 체계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주민 및 지역대학에 기대하는 효과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주체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정주민구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주체	지자체	지역기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다양한 난제 해결 • 경쟁력 있는 우수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 인재 증가 • 지식산업력 활성화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 R&D 효율성 제고 • 지역대학이 길러낸 우수한 지역인재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식산업이 필요한 지역인재를 적기에 확보
주체	지역주민	지역대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대학시설을 문화복지시설, 연구단지 등으로 전환하여 지역 사회 활력 제고 • 자녀를 진학시키고 싶은 지역내 우수대학이 많아 저 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의 다양한 평생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은 자율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 확보 • 지역의 싱크탱크,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예산자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완화 및 유연한 재정운영 가능

[그림 II-7] RISE 기대효과

출처: 교육부(2023a).

2. RISE 시범지역 운영¹⁾

가. 시범지역 선정 주요 내용

- 정부에서는 RISE 체계 시범운영 지역을 공모로 선정하고, 향후 전체 지자체에 RISE 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였음
- 시범운영 지역 선정의 주요 목적은 RISE 시범운영을 통한 차질 없는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RISE 성공 모델을 만들고 비(非)시범지역의 RISE체계 구축 선도 필요
 - ‘25년에 전 지역 확대에 앞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차질 없는 RISE 체계 도입
 - ‘23~’24년 5개 내외 사도의 시범운영을 거쳐, 면밀한 준비를 통해 ‘25년 전 지역의 안정적 도입 추진
- 시범지역 선정 기준
 - (신청서 포함 내용) 사도의 의지와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2년간 실적 자료 및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계획 등

〈표 II-2〉 RISE 시범지역 선정 기준

항 목		내 용
지역 여건	산업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현황 및 성장 전략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 참여 필요 분야
	대학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학 일반 현황 지역대학 학생·졸업생 현황 지역대학 현황 진단 및 주요 현안
	정주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정주인재 양성 지원 실적(‘21~’22)
지자체 의지와 역량	조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지원 전담 조직·인력구성 현황 및 향후 개편 계획 비영리법인 지정(또는 설립) 계획 및 조직·인력 운영 계획 지자체 주도로 신규 기획추진 할 수 있는 대학지원 투자 자원계획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자체 대학재정지원 사업 실적(‘21~’22)

1) 이하 내용은 교육부(2023b)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항 목		내 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지자체 대학지원 사업계획(예산사업) 중앙부처 사업 연계 지원 및 대학과 협업 실적(우수사례 등 비예산 포함)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대학지원 관련 조례·규칙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 지역-대학간 협업성과 및 대학관련 규제개혁 실적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심의 의견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규제권한 발굴(타부처 포함) 지역내 대학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

출처: 교육부(2023b)

- (평가 기준)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정

〈표 II-3〉 RISE 시범지역 선정 평가기준

항 목		내 용	배점
1. 지역 여건	산업측면	1. 지역 여건 현황 및 분석의 적정성	10
	대학측면		
	정주측면		
2. 지자체 의지와 역량	조직역량	2-1. 대학지원 전담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 2-2. 비영리법인 지정(또는 설립)운영 계획의 적정성 2-3. 지자체 주도로 운영 가능한 대학지원 재원 확보의 적정성	50
	대학 지원	2-4. 지자체의 대학재정지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0
	제도 운영	2-5. 지자체의 대학지원 및 협업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정도	10
	운영 의지	2-6.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대학 자원육성 방향 및 구상의 적정성	20
	계		100

출처: 교육부(2023b)

나. RISE 시범지역 운영

- RISE 시범지역은 RISE 협약안 마련 및 규제혁신, 재정지원 및 글로벌대학 선정·지원 및 기반마련과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함

- (협약)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을 위한 RISE협약안('23~'27) 마련 및 실행
-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을 위해 시·도와 교육부와 공동 설계조정 (Co-Design)을 통한 협약안 마련(~'23.6) 및 협약 체결('23.7. 예정)

※ 시범지역별 협약안 공동 설계조정과 지원을 위한 교육부 실무 담당자 지정 추진

〈협약안 주요내용(예)〉

- 지역산업 및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고등교육 지원발전 방향 마련
- 지역 대학의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협의를 통한 특례
- 지역현안 및 산업과 연계된 지역 자체 대학 지원 사업 발굴기획
- 기존 지역 내 대학의 중앙부처 대학지원사업 또는 지역의 인재양성 사업의 연계 활용 방안

- (규제혁신)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를 분석·발굴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 협약안 마련과 함께 필요한 규제특례 발굴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 준비(~'23.7)

- (재정지원)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비영리 법인 지정 또는 설립,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및 사업 기획 추진

- (글로벌대학 선장·지원) 지역대학이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경우 선정 대학에 대한 육성방안, 집중투자계획 수립

※ 시범지역은 글로벌대학을 필수 신청하여야 하여 사전에 지역대학과 협력 필요(글로벌대학 관련 세부사항은 상반기 중 별도 안내)

- (기반 마련) 시도별 대학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대학지원을 위한 조례 등 정비
- (제도개선 협력) 교육부와 협력을 통해 전 지역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협조

○ RISE 시범지역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함

- (재정지원)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법인에 예산 지원*, 관련 사업 관리 권한 위임

* 지자체 법인으로 예산지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가능한 사업에 대해 지원 추진

※ 시범지역은 지역혁신관련 대학지원사업(RIS, HiVE, LiFE)에서 일부 우대(가점 등) 추진

- (규제혁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학의 혁신에 필요한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

- (컨설팅 지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협약 체결 등 시범운영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관 파견) RISE연계 대학 정책 추진 및 협약 마련 등 지역의 RISE 구축 지원을 위한 시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추진
- ※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파견 인원, 지역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글로벌대학 육성) 지역 내 과감한 혁신의지와 역량을 가진 대학(1~2개)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자체-범부처 협력 집중 육성
- ※ 지역의 글로벌대학 지정 여부는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어 지역별 수 등은 마정(시범지역은 선정 시 적극적 참여협력을 위한 우대 가능(세부사항은 차후 별도계획에 포함))

다. '23년도 시범지역 선정 결과

- 앞서 제시한 계획에 따라 '23.3월 정부에서는 7개* RISE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음.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지역균형과 다양한 모델 마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 선정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 7개 시범지역 선정결과 : 시지역(대구, 부산), 도지역(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 각 시범지역에서는 2025 RISE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별 계획을 제출하였음
 1.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RISE 추진과 지역 대학지원 관련 업무 기획 총괄
 2. (가칭) RISE센터 지정·운영: 지역주도 대학지원 사업관리, 선정·평가 전담
 3. RISE계획 수립: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대학지원 5개년 계획 수립(23년 상반기)
 4. 규제특례 발굴·신청: RISE계획 실행에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 교육부 검토 후 지정
- RISE 시범지역별 선정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4〉 RISE 시범 운영 지역 주요 내용

시도	주요 내용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가용 재원의 10% 투자계획 제시 • 전담조직-전담기관-협업체 간 명확한 역할 제시 • 기업 등 산업계,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대학지원 전략 제시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전문대학-대학-평생교육의 연계 강화 •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주력산업 연구 특성화 대학/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대학/지역정주기반 평생교육체계 구축 제안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거점 글로벌 대학 및 정주형 특성화 대학 육성 • 열린대학 중심 융합인재육성 4대 프로젝트 제안 • 파워풀 인재양성/ D-Brain 산업전환/ 현장밀착 기업혁신/ 지역혁신 열린대학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대학지원 전담부설 신설 • 자산학협력브랜드(52개소)운영 • 부산형 지역대학지원 및 인재양성 체계 제안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 제시 •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지역산업연계 대학특성화,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마련, 글로벌 인재 육성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12대 대학지원 과제 수립 •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확대 추진 • 지역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 지정·운영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 체계를 통한 총복합 대학지원 프로젝트 제안 • 지역정착형 Local-취·창업 우수대학 육성 • 생애주기별 직업·평생교육 앵커대학 육성 • 미래첨단산업 연구역량 강화 선도대학 육성 • 글로벌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라. 지자체별 RISE 전담조직

- 2023년 7개의 시범지역 운영 이후, 2024년에는 전국의 지자체가 RISE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RISE 체계 구축시 지자체에는 사업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사도청(광역 자치단체) 담당부서 및 전담기구는 다음과 같음

〈표 II-5〉 지자체별 RISE 전담조직('24.5.1 기준)

시도	담당부서	지역RISE센터(지정일)
강원	교육법무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4.4.15)
경기	디지털혁신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4.1.15)
경남	교육인재과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23.7.14)
경북	교육협력과	경북연구원('23.7.14)
광주	교육정책관	광주테크노파크(지정신청 예정)
대구	대학정책국	대구정책연구원('23.7.25)
대전	대학혁신지원과	대전테크노파크('23.10.30)
부산	자산협력담당관	부산라이즈혁신원('24.12.10)
서울	경제정책과	서울연구원('23.9.14)
세종	청년정책담당관	세종테크노파크(지정신청 예정)
울산	대학청년지원단	울산테크노파크('23.12.16)
인천	교육협력담당관	인천테크노파크('23.10.20)
전남	대학혁신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23.7.25)
전북	교육협력추진단	전북테크노파크('23.5.18)
제주	미래성장과	제주테크노파크('23.5.18)
충남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충남연구원('23.7.14)
충북	RISE추진과	충북연구원('23.7.14)

3. '25년 RISE체계 확대 시행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가. 추진개요

- '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5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예정인 RISE체계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및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25년 교육부 예산(안)에 의하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교육부, 2024a)
 -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 RISE 체계 내에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하였음

나.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 (RISE 전국 시행)을 대비하여 '25년부터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될 2조원을 편성하였음
-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할 때 시너지가 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조정 및 증액함('24년 대비 +8,000억원)
- 교육부의 25년 예산안 중점 투자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그림 II-8) 참조)



[그림 II-8] 2025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출처: 교육부(2024a).

- RISE 전환에 따라 既 발표('23.2.)된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한 예산은 총 1.2조원임

* RIS(지역혁신) 3,420억원, LINC(산학협력) 4,070억원, LiFE(평생교육) 510억원, HiVE(직업교육) 900억원, 지방(전문)대학성화사업 3,125억원

- '25년도에는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에 더하여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RISE 내역사업으로 이관*하여 RISE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함
 - 기 계획된 사업기간까지 이관사업별 지원대상 대학은 지속 지원함
 - 또한 의대 교육혁신·지역협력기반 늘봄 지원 등을 위한 증액,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통합·규모 조정 및 재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25년부터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지원을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RISE 체계 내에서 글로벌대학, 의대 교육혁신, 지역협력 기반 늘봄지원 추진
 - RISE 국고 예산에 더하여, 각 지역별 국고 지원액 대비 20%+α 추가 매칭으로 두터운 대학재정지원 규모를 달성하고자 함

〈표 II-6〉 '25년 RISE 정부 예산안 구성

사업명		예산 (억원, '24.)	정부안 예산(억원, '25.)
세부사업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25	20,010
내역 사업	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25	17,047
	②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010	2,010
	③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58	258
	④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96	96
	⑤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210	210
	⑥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140	140
	⑦마이스터대 지원	151	47
	⑧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142	142
	⑨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60	60

출처: 교육부(2024b)

- '25년 RISE 체계 구축 관련 주요 예산(안)을 보면 기존의 5개 사업통합 예산 1.2조 외에 추가 사업 지원을 합하여 총2조원으로 편성하였음(〈표 II-6〉 참고)

○ — III. 경상북도 RISE체계와 K-U시티 현황과 주요 쟁점

- 1. 경상북도 RISE체계 주요 내용
- 2.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제안 배경
- 3.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운영 현황
- 4.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특징과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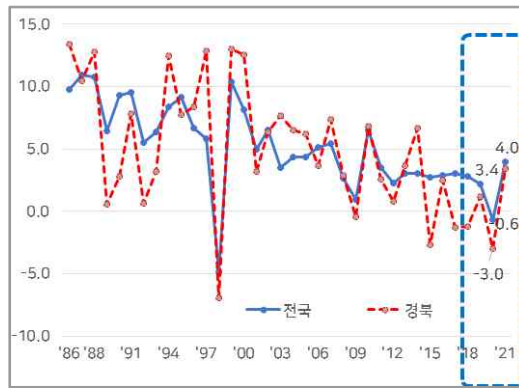
경상북도 RISE체계와 K-U시티 운영 현황과 주요 쟁점

1. 경상북도 RISE체계 주요 내용

가. 추진배경

- 경북 현황 및 여건 측면에서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경북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됨
- 경북의 총학령인구 및 대학생존율, 대학 입학정원 및 청년유출 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2040년도까지 학령인구가 44% 급감하며, 대학 생존율은 현재의 40개교에서 2046년에 15개교로 감소하여 약 3.1%만이 생존할 것으로 나타남
 - 2040년까지 입학정원의 미충원율은 50%로 더 낮아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유출인구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위기 상황임
- 특히 경북지역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지역산업구조 변화 및 창업(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산업기술인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북지역의 전문산업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창업기업은 수도권 55.6% 대비 경북은 4.3%에 불과하고, 벤처기업은 수도권 64.8% 대비 경북 3.6%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경북 지역의 경제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경북은 성장률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국 대비 낮은 성장률(2021년 3.4%, 전국은 4.0%)을 보여주고 있음
- 2010년 중반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경상북도가 전국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후 제조업 첨단화의 구조전환 실패 및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대한 대응의 미흡 등 제조업의 산업기반 약화로 경북의 성장률이 전국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2020년 이후 최근 몇 년 간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III-1] 경북 성장률 추이(단위: %)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실질, 2015년 기준), 각년도.

- 경북의 지역내총생산은 112.8조원으로 전국 생산액(명목) 2,076.3조 대비 5.4%('21년) 비중을 나타냄
 - 이는 2010년 6.6% 비중보다 낮음. 10년 사이 경북이 전국에서 차지했던 생산 비중이 1.2%p 감소한 것임
 - 경상북도 내에서 제조업 생산액은 소폭 증가하고, 비중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제조업의 생산액은 44.7조원으로 경북 전체 생산의 51.0%를 차지하였지만, 11년이 지난 2021년은 46.7조 원으로 약 2조 원 증가에 그치고 있음
 - 경북 전체 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감소하여 2010년 51.0%에서, 2021년은 41.4%로 나타나 약 10%p가 감소하였음

- 약 10여 년 동안 급감한 제조업 비중과 비교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2010년 31.5%에서 2021년 39.7%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의 생산액 비중이 높게 다소 높게 나타났음

〈표 Ⅲ-1〉 산업별 생산액과 비중

(단위: 10억, %)

구분	2010년 명목		2021년 명목	
	GRDP	비중	GRDP	비중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87,701	100.0	112,785	100.0
· 제조업	44,706	51.0	46,744	41.4
· 석탄및석유화학	3,643	4.2	4,930	4.4
· 비금속광물및금속	11,524	13.1	14,659	13.0
· 전기전자및정밀기기	23,395	26.7	17,789	15.8
· 기계운송장비및기타	3,235	3.7	5,531	4.9
· 건설업	4,369	5.0	5,488	4.9
· 서비스업	27,609	31.5	44,775	39.7
· 도매및소매업	2,685	3.1	3,502	3.1
· 금융및보험업	2,343	2.7	3,368	3.0
· 부동산업	3,217	3.7	4,262	3.8
· 사업서비스업	2,622	3.0	5,909	5.2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4,750	5.4	9,952	8.8
· 교육서비스업	3,755	4.3	5,090	4.5
· 보건업및사회복지	2,080	2.4	4,068	3.6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실질, 2015년 기준), 각 년도.

〈표 III-2〉 경북 시·군의 당해년 GRDP와 증가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2020년		성장률			
	GRDP	비율	GRDP(백만원)	비율	'15-16	'16-17	'17-18	'19-20
경북	103,120,174	100.0	105,771,509	100.0	2.5	-1.2	-1.2	1.2
포항시	16,587,811	16.1	18,620,504	17.6	-0.1	6.4	-0.1	3.4
경주시	9,960,756	9.7	9,921,536	9.4	4.1	-1.3	-1.8	1.6
김천시	4,964,756	4.8	5,654,517	5.3	3.1	-1.6	3.2	-1.7
안동시	3,248,266	3.1	6,018,724	5.7	32.2	0.1	7.5	11.5
구미시	34,732,664	33.7	27,984,001	26.5	3.1	-8.6	-4.6	-3.0
영주시	2,784,874	2.7	3,038,326	2.9	-5.9	9.5	0.7	3.2
영천시	3,258,783	3.2	3,824,513	3.6	2.7	-0.9	3.4	2.4
상주시	2,196,807	2.1	2,492,442	2.4	0.4	-3.6	-4.4	11.3
문경시	1,431,745	1.4	1,794,902	1.7	2.1	3.2	7.4	-2.5
경산시	7,231,040	7.0	7,997,516	7.6	1.9	1.3	1.3	8.3
군위군	764,963	0.7	846,953	0.8	2.2	-0.8	0.0	-2.2
의성군	1,229,888	1.2	1,408,077	1.3	-1.2	-4.1	1.9	5.8
청송군	692,663	0.7	803,523	0.8	-0.6	-1.9	0.8	13.2
영양군	373,745	0.4	439,126	0.4	16.1	-0.2	-14.2	2.3
영덕군	801,844	0.8	928,968	0.9	-4.4	-0.4	-4.3	8.4
청도군	1,003,464	1.0	1,015,755	1.0	1.0	-3.4	-1.7	2.5
고령군	1,358,292	1.3	1,265,197	1.2	-4.5	7.1	1.4	-3.6
성주군	1,608,489	1.6	2,071,278	2.0	3.1	14.2	-5.7	-4.2
칠곡군	3,877,013	3.8	4,584,662	4.3	1.9	4.9	-0.3	-1.5
예천군	1,033,787	1.0	1,150,431	1.1	5.1	1.6	-0.9	-1.8
봉화군	979,520	0.9	1,163,777	1.1	-1.0	1.0	-1.5	10.6
울진군	2,718,777	2.6	2,468,740	2.3	-10.4	4.4	-2.4	-4.6
울릉군	280,227	0.3	278,041	0.3	-3.3	1.7	9.0	-7.3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및 성장률, 2015년 기준년가격(백만원)

출처: 김용현(2023).

나. 경북 RISE체계 주요 내용

- 경북 RISE체계는 이러한 지역의 위기를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3년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4년도 기존의 사업 연계 추진을 거쳐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RISE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시간적으로는 2025~20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며, 단기, 중기, 장기계획의 3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됨
 - 공간적으로는 경북 전역 및 필요할 경우 인접 지자체가 포함됨. 대구 및 여타 지자체와의 연계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수립됨
- 경북 RISE 체계는 환경분석, 제도마련, 운영계획 및 전략방향 수립 이후 성과분석을 포함한 내용 범위를 중심으로 설계하였음(그림 III-2) 참조)



[그림 III-2] 경북 RISE체계 내용 범위

출처: 경상북도RISE센터(2024b).

- RISE는 지자체 중심의 범정부 지역대학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체계이므로, 지역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추진하게 됨(그림 III-2) 참조)
 - 기존의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지원에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맞춤형 대학지원을 목표로 하며, 교육부 및 타중앙부처 재정, 기업 및 산업체 등 민간재정을 통합하여 대학과 협력하는 체계임



[그림 III-3] 지역주도 대학자원체계 구축도

출처: 경상북도RISE센터(2024b).

- 경북 RISE 체계의 비전은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K-대학 대전환'이며, 이를 위한 4대 혁신과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도출하며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로 체계화 되어 있음



[그림 III-4] 경북 RISE체계도

출처: 경상북도RISE센터(2024a).

- 경북 RISE의 4대 핵심과제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경북 RISE체계에서 총 4개 핵심과제는 4개 프로젝트, 17개 단위과제로 구현이 되며 경북형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그림 III-5] 참조)



[그림 III-5] 경북 RISE 핵심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출처: 경상북도RISE센터(2024b).

- 경북 RISE 체계에서 추진한 4개의 프로젝트는 앞서 제시한 경북 지역의 인구감소, 산업기술인력부족, 지역산업구조 변화, 청년유출 및 산업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임
- 경북RISE 4대 프로젝트는 기존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4가지 핵심과제 달성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첫째, 지역정주 동반성장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로, 총4개의 유형별 단위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둘째, 자산학연 일체화를 위해 [K-IDEA VALLEY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총5개 단위과제가 포함됨. 본 프로젝트는 대학기업·연구소의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며, 창업밸리, 산업특구 및 인재양성을 추진함
 - 셋째, 100년 대학 육성을 위해 [K-IVY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역특성 및 대학전문성에 기반한 경북형 글로벌 대학을 포함하여 총4개의 단위과제가 포함됨

- 넷째, 지역사회 동행을 위해 [K-LEARNing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학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을 포함하여 해외인재유치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4개의 단위과제가 포함되었음

2.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제안 배경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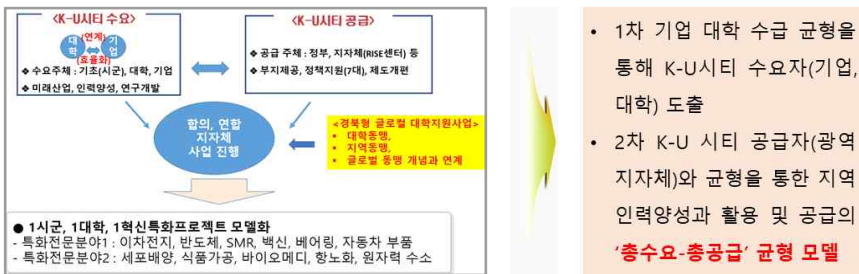
- 경북 K-U시티는 '23년 RISE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4대 프로젝트의 하나이며, '23년 시범사업 이후 추진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
-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K-U시티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

가. K-U시티 수급 성장 모형

- 경북의 K-U시티 프로젝트는 경제성장모델과 관련이 있음
 - 이러한 모델은 수요 공급 통합 모델로 인적자본이론 등 내생적 성장모델 내용을 포괄함
 - 즉 지역주도 성장 전략은 지역화 경제의 성과와 도시화 경제 성장 모델의 동시적 균형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보장해주는 모델 형태임
- 이 모델은 지역 소재 대학 자산을 지역경제로의 편입과 활용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발전 전략이 되고, 시·군 각각의 전략 성장 모델은 경북도 단위의 다양한 업종형태의 성장 모델로 작동할 것을 모형으로 함
 - 특히 감소하고 있는 학령인구로 인해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학의 기능을 단순히 교육이 아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개념임
 - 또한 산학연 일체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중앙정부 재정지원 통제를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역대학의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RISE 모형과 일치함

2) 이 부분은 김용현(2023)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이 모델은 경북형 정주시대 프로젝트 모델, 지방전성시대(K-U City) 전략, 기초 지자체-지역산업-대학(전문대, 고교)의 지방주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7개 분야(교육,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보육, 완전돌봄)별 생애전주기 정책지원 체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목표로 함
- K-U 시티를 공간적 범주로 가정할 경우 대학과 기업은 정책 수요자로서 역할을, 정부와 지자체는 공급자의 역할이 되는데, 지·산·학연 일체화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체화라 할 수 있음(그림 III-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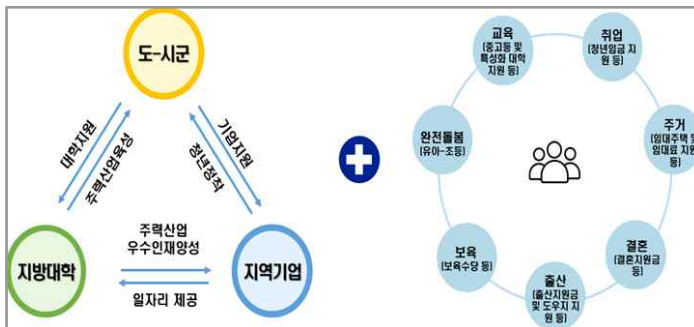
[그림 III-6] 경북 K-U 시티 공급 성장 모형

- 경북이 추진하는 K-U시티 프로젝트는 청년 지방 정주 'K-U 프로젝트'(Kyeongbuk-University, Unique, yoUth, City for You)는 1시·군1대학1전략 프로젝트(지역과 대학 기업의 동맹)로 정의할 수 있음
- 경북의 K-U시티는 4가지의 정책 범주를 포함하고 있음. 첫째 (University)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둘째 (Unique) 지역 전략산업 기반 명품 브랜드화, 셋째 (Youth)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환경 조성, 넷째 (City for You) 청년을 위한 주거, 문화, 의료, 교육 등 도시조성임
- K-U 시티 모델은 청년 지방 정주 'K-U(Kyeongbuk-University, Unique, yoUth, City for You) 프로젝트로 명명되며, 지역과 대학 기업의 동맹(1시·군·1대학·1전략 프로젝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그림 III-7) 참조)



[그림 III-기] 경북 K-U시티 모형

- 이 프로젝트는 시·군 특화산업-지역대학-기업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방 주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대학-지역기업-지방정부가 (지역특화)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교육·취업·주거·결혼 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함
 - 취업·결혼 지원은 지역대학(고교) 인재들이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 조성은 LH 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지원금’ 10년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함
 - 인력양성(대학·고교) 교육지원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이 되도록 하고, 문화·복지 환경 조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사업과 전략들은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됨 ([그림 III-8] 참조)



[그림 III-8] K-U시티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7대 지원체계

-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K-U 특성화 전략 및 산업분류를 위한 맞춤 매트릭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I-3〉 경북 시군별 K-U특성화 전략 및 산업분류

	산업중분류	특성화(산업세분류)	시·군	전략
10	식료품 제조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제조업	영양	식품가공
		107. 기타 식품 제조업	예천	미래식품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영덕	해양웰니스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경산	뷰티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안동	바이오헬스
		21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성	세포배양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업	청송	항노화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중기계 제조업	경주	SMR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영천	자동차부품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제조업	구미	반도체
28	전기장비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포항	이차전지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상주	이차전지(음극재)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영주	베어링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칠곡	첨단농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성주	미래차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고령	첨단소재제조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울진	원자력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울릉	글로벌그린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김천	스마트물류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봉화	바오오메디
86	보건업	863. 공중 보건 의료업	청도	라이프케어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문경	IT레포츠재활

- 김용현(2023)의 연구에서 제안한 이러한 모형은, 시범사업을 포함한 사업 고도화 과정 설계에 반영되고 있음
- 다만, 사업의 실제적 성과 및 타분야(교육, 주거, 돌봄 등)와의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나. K-U 성장 모델 검증 결과

- 김용현(2023)의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대안 모델로 경북의 K-U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계량화하여 실증하였음
 - 대학의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과 지역발전에 대학과 기업의 노력을 통해, 경북이 성장할 수 있는 K-U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검증하였음
 - 이 연구에서 제시한 K-U 성장모델의 결과는 실제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김용현(2023)의 연구에서는 모델 검증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2022년 상반기)와 2020년 통계청이 제시한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활용하였음. 지역별고용조사는 통계청이 매년 반기별로 표본 가구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상태, 직장(일) 및 구직 활동을 조사하는 자료로,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설계를 위해, 1차로 기업과 대학의 인력 수급 균형을 통한 K-U 시티 수요(기업, 대학)를 확인하고, 2차로는 K-U 시티 공급(광역지자체)과의 균형을 통한 ‘총수요-총공급’ 균형 모델을 설정하였음
 - 균형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임금의 대리변수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활용하여 지·산·학·연 수급 총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였음. 즉 1시·군, 1대학, 1전략 더미변수(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생산성(GRDP)에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음
- 연구 결과, 기초지자체 내 대학의 존재는 GRDP에 강력한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며, 지역에 대학 존재 자체가 GRDP 증대의 중요(Key)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K-U 시티 전략 즉, 1시·군, 1대학, 1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성공할 경우 약 26.1%~36.1%의 GRDP 증가율을 가져 올릴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음

- 향후 5년 내 K-U 시티 전략 프로젝트 성공을 가정할 경우 매년 평균 5%대 이상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으며, 10년 내 성공 가정 시 평균 매년 3%대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연구는 미시(Micro) 개별 자료와 집계 거시(Macro)자료와의 매칭 문제, 변수의 시차 문제, 시·군 전략산업과 표준산업과 매칭 문제 등을 개선하는 등 향후 이론적 모델 정치화가 필요하지만,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모델을 설정하고 검증한 성과를 확인한데 의의가 있음
- 1지역, 1시·군, 1대학 프로젝트의 성공은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주체간 동반성장 상생에 대한 상호 인식을 통해 가능한 점이 발견되었음
- 또한, 지역이 주도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은 지역혁신의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중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3.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운영 현황

가. 시범운영 현황

-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소재 중요자원인 대학이 지역발전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김용현, 2023)
- 그간 대학은 학문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장막 안에 지역사회와 대학이 칸막이를 가지고 있었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열린 대학 운영방식 보다는 폐쇄적이고 개별 사업성과 위주로 운영되었다고 보고 있음
- 이제는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 허브화가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산·학·연 등 대학-지역-기업의 새로운 발전 협력 틀을 통해 지방 정주 동반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경북의 ‘K-U 성장 모델(Kyeongbuk-University, Unique, yoUth, City for You)’은 이러한 흐름 하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시군-1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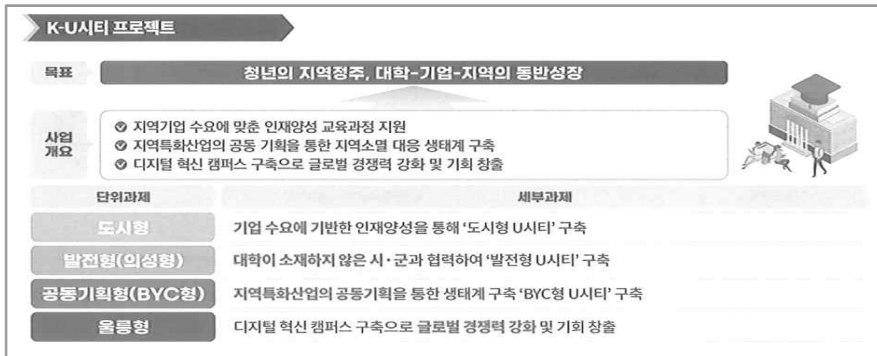
-1대학 모형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지역 인재 부족과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특화 기술 기반의 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경상북도 K-U시티 추진 구조는 시범운영 기간(23년)과 최근 추진 체계가 다소 상이함

- K-U시티 프로젝트는 '23년 시범운영 당시에는 경상북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형, 발전형, BYC형, 울릉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추진 목표는 청년의 지역 정주, 대학-기업-지역의 동반성장에 두었음

- 이를 위하여 지역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교육과정 지원, 지역특화산업의 공동 기획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체계 생태계 구축, 디지털 혁신 캠퍼스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회 창출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유형별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음



[그림 III-9]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체계

출처: 경상북도RISE센터(2024b).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는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산업을 선정하여 대학과 매칭하여 기업의 수요 반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시범운영 기간에는 도비(30%)와 시군구비(70%)로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총예산규모는 53억원 정도였음



[그림 III-10]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시범운영 유형

출처: 경상북도RISE센터(2024a).

- K-U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특성화고 및 타부처 대학 포함)은 다음과 같음
([그림 III-10] 참조)
 - (도시형) 구미반도체 U시티 : 금오공대, 구미대, 경운대, 구미전자공과, 금오공과 등
 - (도시형) 포항이차전지 U시티 : 포항공대,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한국폴리텍대, 제철공과, 흥해공과 등
 - (발전형) 의성세포배양 U시티 : 영남대
 - (BYC형) 청송향노화 U시티 : 대구가톨릭대
 - (울릉형)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 한동대

- 시범운영 기간 중 추진된 K-U시티 프로젝트 중 청송군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청송군은 대구가톨릭대와 협업하여 항노화 물질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 각 주체별 역할을 보면, 청송군은 교육기반구축, 정주여건 지원, 행재정지원 등을 담당하기 위한 청송군 U시티 프로젝트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였음
 - 대구가톨릭대학은 청송군U시티 프로젝트 사업단을 학내에 구축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지역특화형인재양성을 도모함. 대구가톨릭대는 특히 항노화 청송캠퍼스를 조성하여 현장맞춤형 교육 취창업을 실시하고, 3~4학년 20명 현장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송사과 활용 건강기능식품개발, 항노화 사업화를 진행함
 - 청송군 소재 총6개 기업에서는 항노화물질연구 개발 및 산업화, 지역인력 채용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지역 소재 4개 고교는 대학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공동교육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가톨릭대 예방의학과와 청송군 보건소, 주산지 관광자원 활용 항노화프로그램 운영, 농촌관광대학, 항노화 체험 숙박시설 운영 등도 청송군이 대학과 연계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임
- 경북은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 전체의 공간발전을 도모하는 구상을 수립하였음
 - 이는 경북의 총22개 시군이 핵심 산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동반성장하는 모델임

- 경북에서는 '25년부터 『K-U시티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음(경상북도, 2024)
 - 이는 '24년과 달라진 제도적 변화에 맞춰, K-U시티 프로젝트를 고도화 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24년 대비 '25년의 주요 제도 변화를 보면, '25년부터는 RISE 체계 도입과 함께 예산 구조가 변경되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운영됨
 - 또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운영 방향으로 전환됨

2024년		2025년
· 기존 운영 체계	⇒	· RISE 체계 편입
· 예산 53억(도비 30% 시군비 70%)		· 예산 100억(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단년도 목표-시행계획		· 5년 중장기 목표-연차별 계획
· 예산 편성에 제한적		· 예산 편성의 자율성
· 성과평가 없음		· 성과평가 관리체계 도입
· 시군 → 지역대학 지원		· RISE 센터 → 지역대학 지원

[그림 III-13] '24년 대비 '25년 경북도 K-U시티 주요 제도 변화

출처: 경상북도(2024).

나. 2025년 주요 운영 계획 (경상북도, 2024)

- 운영 방향
 - RISE 센터를 중심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
 - 2025년에는 5개년 계획의 첫해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인재 양성: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이론 교육, 현장 실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 통해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
- 혁신 기술 개발: 지역 특화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경쟁력과 기술력 향상 도모.
- 교육 및 훈련: 지역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
- 사업계획서 접수 절차
 - 사업계획서는 대학이 참여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과 협의한 후 시군을 통해 도(道)에 제출
 - 도(道)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확정된 사업을 RISE 센터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 사업계획서는 정책 적합성, 목표 실현 가능성, 협력 구조, 교육 프로그램 실효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종합 평가 점수를 산정하며, 평가 점수에 따라 사업비 증감액 여부를 결정함
 - 총점 100점 기준, 90점 이상(100% 지원), 80점~89점(10% 감액), 70점~79점(20% 감액), 70점 미만(최대 30%까지 감액)
 -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 가능함
- 평가 결과 반영
 - 평가 결과는 사업비 확정 및 증감액 여부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며, 사업 진행 과정에 반영됨
 - 도출된 평가 점수는 해당 대학 및 기업에 통보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수정 및 보완의 근거가 됨
- 성과 지표 설정 및 관리
 - 취업 연계율 70%, 교육 이수율 90% 등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

- 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향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액 가능
- 지속가능 발전 전략
 -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 예산 흐름
 - 국비(교육부) 50억 원과 지방비(도→시군) 50억 원으로 구성된 총 100억 원의 예산이 경상북도 RISE 센터를 통해 지역대학으로 지급되며, 각 대학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
- 2025년 예산 계획
 - 2025년 운영 지침에 따라 작성, 사정 변경에 따라 RISE센터와 시군을 통해 사업 계획의 변경이 가능함
 - 시군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여, 총예산의 15% 이내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이 가능
-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 시군, 대학, 기업 간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정기적인 협의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임
- 업무 흐름
 - 사업계획서는 대학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작성, 시군과 협의 후 시군을 통하여 도(道)로 제출
 - 2025년은 도(道)에서 사업을 평가 후 확정, RISE 센터는 사업 집행과 관리 감독을 수행하며, 사업 완료 시 정산 보고
- 기대효과
 - 단기효과: 2025년 한 해 동안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 및 기술 개발 성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장기효과: 5년간 지속적으로 인재를 배출하며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4.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특징과 주요 쟁점

가.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운영 특징

- 경북의 K-U시티 프로젝트는 '23년 경북이 RISE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추진 체계에 포함된 대표적인 4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하였음
 - 경북의 K-U시티 프로젝트는 지역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위해 [1시군-1대학-1기업] 모형을 구상한 특징을 지니며, 타지역과 차별되는 모델로 알려지게 되었음
 - 시범운영 기간에는 경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형, 발전형, BYC형, 울릉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과 대학을 매칭하는 모델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지역 소재 대학과 기업, 특성화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 '23년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이후에는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사업으로 K-U시티 프로젝트의 범위와 운영 방향을 고도화하였음
 - 시범운영 기간에는 예산 비중이 도비(30%)와 시군비(70%)의 53억원 규모로 구성되었다면, 25년 이후에는 전체 사업이 RISE체계로 편입되면서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의 100억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성과평가 관리체계 도입 등의 변화가 있었음
 -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시군이 직접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면, 25년 이후에는 경북 RISE센터에서 직접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음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가 추진된 배경 및 추진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쟁점이 나타났으며, 일부 쟁점은 '25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운영 관련 쟁점이 존재하고 있음
 - 여기서는 경북도, 대학, 시군구 K-U시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나. 주요 쟁점

1) 상위 법령과의 관계 정립

-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이 국가 차원의 상위 법령 또는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이 나타남
 - 이에 따라 경북 차원에서 추진한 1시군-1대학-1기업 매칭 사업의 내용은 지속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도청 담당자 면담 결과)
 - 경북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대학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문제를 제기 하였음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시범운영 당시 수립한 계획은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특화사업에 참여하여 대학 입학까지 연계하는 것이었음 (도청 담당자 면담 결과)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전국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학입학전형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당초 K-U시티에 맞는 특성화학과를 추진하고 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지침(지역인재특별전형)에서 시군구 별 대학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함
 - 예컨대, 한동대학의 경우 울릉군 고등학교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울릉형 K-U시티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 현재 이러한 입학 관련 지침은 특례 사항으로 제기하고 개정을 추진 중이나, 지자체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 입학전형 등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도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됨 (경상북도 담당자 면담 결과, 대학담당자 면담 결과)

2) 사업비 운영의 자율성 부여

- K-U시티 프로젝트는 시범운영 당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여 운영하였고 시군이 직접 대학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이 과정에서 대학은 시군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호간 협력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대학담당자 면담 결과)
 - 사업비 운영 지침에서 구매 품목이 제한되거나 시군 담당자에게 대학에서 사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대학담당자 면담 결과)
 - 또한 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학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의료 등 사업비 제약으로 사업이 확대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음 (대학담당자 면담 결과)
- 사업비 운영의 자율성 쟁점은 사업비 관리 주체가 시군에서 RISE 센터로 변화되므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침이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 목표에 맞도록 대학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함 (시청담당자 면담 결과)
 -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서 직접 사업비를 관리하게 될 경우 사업비 운영 주체인 대학과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임

3) 지역 소재 기업의 한계에 따른 사업 구조 마련

- K-U시티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즉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 유치가 되어야 함
 - 현재 인구감소의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지역의 산업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업 유치에도 한계가 나타남 (대학담당자 면담 결과)
 - 시범운영 당시에 K-U시티 프로젝트는 특정 대학과 특정 지역, 특정 기업(산업)을 매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소재 기업이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맞지 않고 타지역과의 매칭이 어려운 한계가 나타나게 됨 (시청 담당자 면담 결과)

- '25년 이후에는 기존의 4개 유형을 넘어서 특정 기업과 지역 내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된 사업 방식으로 설계하여 기존의 쟁점은 해소될 전망이다 (도청 담당자 면담 결과)

- 그러나 여전히 K-U시티 프로젝트는 대학과 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이므로 일자리와의 연계가 수월하지 않은 구조를 지니고 있음

- 경북 내 타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K-U시티 사업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당초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됨 (대학 담당자 면담 결과)

- 시범운영 과정에서 수립한 K-U시티 프로젝트는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25년 이후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사업'으로 사업 운영 방식이 변화되었음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모델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대학 담당자 면담 결과)

- 초기의 사업모델이 고도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가 적어도 2~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점에 비추어 급격한 변화는 사업의 확장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지역 내 대학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가는 과정적 경험이 수반될 필요를 제기함 (시청 담당자 면담결과, 대학 담당자 면담결과)

4)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연계 협력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귀결됨 (도청, 시청, 대학담당자 면담 결과)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사업성고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 역시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표 구성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사업성과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학과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상호 소통 과정이 필요함

IV. 결론

- 1. 경북 K-U시티 성공 핵심요소
- 2. 제언

1. 경북 K-U시티 성공 핵심 요소

- 경북 K-U시티 개념은 대학의 지식 자원과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도시 및 지역개발 전략임(김용현, 2023)
 - 이는 지역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식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K-U시티 성공의 핵심요소는 대학과 산업의 연계, 인재 양성 및 고용창출, 연구개발 및 혁신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임
 - 첫째, 대학과 산업이 연계되어야 함. 대학의 연구 및 개발 능력과 지역 산업의 필요를 연결하여,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함. 이는 대학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해야 함
 - 둘째, 인재 양성 및 고용 창출로, 지역 대학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함. 이를 통해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내에서 고용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연구개발(R&D) 및 혁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지자체와 대학은 지역 산업 유치와 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창업을 촉진해야 함. 이는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넷째,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해야 함. 대학과 산업의 협력

은 지역 경제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K-U시티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므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개발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 강화,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 지역 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역고용 및 일자리 정책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이 향후 K-U시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함

2. 제언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북 K-U시티 운영 현황 및 쟁점, 성공의 핵심요소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는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구조 및 추진 내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성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자체가 추진하는 RISE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참여 각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 경북 K-U시티 프로젝트는 경북 RISE체계에 포함된 단위 과제임. 따라서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므로 타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면서 필요할 경우 단위과제 간 연계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함
 -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K-U시티 프로젝트는 2025년 경북RISE사업 계획에서 다른 사업과 통합되어 사업 구조 변경이 이루어졌음
 - 이러한 변화는 일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각 지역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과 대학의 연구, 교육역량을 집결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구조 개선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야 함
 - 이는 사업의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의미함
 - 사업 성과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포괄

- 하며 연계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성과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보다 수월하게 단위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의 사업비 운용 자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음
 - K-U시티를 포함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김용현(2023)은 K-U시티 지역발전 전략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음. 사업 초기이므로 이러한 실증적 검증의 결과는 이후 확인될 수 있으나, 연구에 기반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기반한 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RISE체계에 포함된 사업 간 연계구조, 사업 모델의 실증적 성과 검증 등 연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RISE 체계가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배분될 수 있는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K-U시티 프로젝트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상위법령과의 충돌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은 지자체의 RISE 체계 구축 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임. 특히 전국 단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RISE 체계 변화가 필요하므로 이는 자율적인 계획 수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재원의 일부가 RISE 예산으로 배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당국과의 소통, 주민들의 정책 이해를 통한 인식 확대 및 공감대 뒷받침되어야 함. 지자체의 RISE 체계 구축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예산 확보와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상북도(2024). 2025년 K-U시티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운영 계획.
- 경상북도 RISE센터(2024a). 대학이 중심이 되는 확실한 지방시대: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 설명회자료.
- 경상북도 RISE센터(2024b). 경상북도 RISE 추진방향 및 전략. 설명회자료.
- 교육부(2023a).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대학·지역·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시범지역 공모. 보도자료.
- 교육부(2023b).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별첨]자료.
- 교육부(2024a). 2025년 교육부 예산안 104.9조원 편성. 보도자료.
- 교육부(2024b).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시안).
- 김용현(2023). 경북 K-U시티 지역발전전략 구조와 실증분석 연구. 경북연구원.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ISE 시범운영 프로젝트 중 K-U시티 프로젝트 구축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RISE 성과 도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RISE 체계 구축 경과 분석, 2023년 RISE 시범지역 운영 내용 분석, 경북 RISE 체계 주요 현황 분석 및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현황 및 쟁점 분석, 향후 지자체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시사점 도출 등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K-U시티 프로젝트는 2023년 시범운영 선정 당시 1시군-1대학-1전략 프로젝트 수행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도시형/발전형, 공동기획형, 울릉형의 4가지 유형을 수립하고 대학과 지역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도비(30%)와 시군구비(70%)로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총예산규모는 53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K-U시티 프로젝트]는 4개의 유형을 벗어나 지역의 수요와 공급, 경북형 특성화 전략 프로젝트를 모델화 하는 방식으로 변경, 고도화되었으며, 2025년에는 다른 프로젝트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사업구조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K-U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위법령과의 관계 정립, 사업비 운영의 자율성 부여, 지역소재 기업의 한계에 따른 사업구조 마련 및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연계 협력 등의 한계와 쟁점이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RISE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중앙정부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RISE 체계 구축,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 대학재정지원사업

A b s t r a c t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 of the K-U City Project within the RISE pilot operation project promoted by Gyeongsangbuk-do an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future RISE performance outcomes.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s the progress of the RISE system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the operation of the 2023 RISE pilot regions, the key status of the Gyeongbuk RISE system,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the Gyeongbuk K-U City Project, and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The K-U City Project, initiated by Gyeongsangbuk-do, was designed in 2023 with a structure that paired one city/county with one university and one strategic project. It wa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urban/developmental, co-planning, and Ulleung-type models, and was implemented by matching universities with local regions. During the pilot operation period, the project was funded with 30% from the provincial budget and 70% from city/county budgets, with a total budget of approximately KRW 5.3 billion. From 2024 onward, the K-U City Project evolved beyond the four initial types, shifting toward a model that reflects local demand and supply while incorporating Gyeongbuk-specific strategic specialization projects. By 2025, it was integrated into other projects, resulting in structural changes in its operation.

This study identified key issues and limitations in implementing the K-U City Projec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with higher-level

A b s t r a c t

ABSTRACT

laws, granting autonomy in budget management, addressing structural constraints due to the limitations of local enterprises, and fostering collaboration for tangible project outcomes. To resolve these challenges and ensure the success of the RISE system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joint efforts among local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Keywords: Local Government RISE System Development, Gyeongsangbuk-do K-U City Project,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gram

